

# 대학병원에 불심 바람 분다

연초부터 대학병원 불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학병원 불자회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동국대 일산병원에 불자모임 '연우회'가 창립되고, 중앙대·건국대 병원에서도 불자회 결성이 추진되는 등 대학 병원에 불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연우회는 병원 전체 직원의 80%에 가까운 4백여 명이 가입해 매머드 병원이란 이름에 걸맞은 회원 수를 확보했고, 중앙대와 건국대 병원도 자체법당을 마련해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건국대 병원 불자회는 소아과, 치과 전문의와 원무·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50여명의 불자들이 불자회를 조직하기 위해 등분서주하고 있다. 이미 건대 병원 불자들은 병원 내 자체 법당을 마련하는 등 신형활동 여건을 조성했다.

건국대병원불자회 창립추진위원회 박연화(45·원무과)씨는 "현재 불자회 결성을 위한 병원 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후에도 중대 병원 불자들은 어법한 법당 조성, 소규모 직원 불자법회 봉행, 고대 병원불자회와 연대를 통한 농촌의 료봉사 등을 아부지게 진행해 불자회 창립의 토대를 다졌다. 법당과 소규모활동을 바탕으로 한 중앙대병원 불자회는 올 상반기에 공식적인 창립을 하고 신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병원 불자회창립이 잇따라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활동중인 불자회들도 신형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산 동아대병원 연불회(회장 박옥규)는 부산대병원, 인제대 백병원, 경상대병원 등과의 합동법회를 올 상반기에 봉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불교법우회, 영남대 영불회, 동국대 경주·포항병원 불자회들도 1998년 중단됐던 연불법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불심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불교계의 다각적인 노력도 모아지고 있다. 특히 동국대, 서



대학병원 불심이 연초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1월25일 동국대 일산병원 '연우회' 창립 법회 봉행 모습.

활동 강화를 위한 종단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불자회 창립 붐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직장불자 전문가들은 △소속 병원(장)의 종교적 성향 △24

현실적인 예로다. 때문에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불교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병원 불자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불자회 개개인의 불교적 소양이

## 동국대 일산병원 불자모임 '연우회' 창립 이어 건국대·중앙대 법당 마련하고 불자회 결성 박차

병원 안팎에 불자회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올 2월부터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병원의 불심도 만만치 않다. 병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중대 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원 스님의 원력과 몇몇 의사의 노력으로 어렵게 지난해 3월 법당 문을 열었다.

올대 등 병원법당 지도법사 스님 8명이 정례 모임을 갖고 병원법당 운영방법을 교류하겠다고 나섰다.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중계 스님은 "이전부터 병원 지도법사 스님들의 모임은 있었으나 체계화·공식화되지는 않았다"며 "병원법당 운영을 통해 더득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기 위해서 2월부터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도 '병원 불심 잡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최근 동대 병원 불자회 창립법회에 참석해 병원불자회 신형

## 병원법당 지도법사 정례모임서 운영방법 교류 조계종 포교원 '한우 불심 잡기' 지원 약속

시간 근무형태 등 병원 특성을 감안한 신형 프로그램 미개발 △종단의 병원불자회 신형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부족 등을 병원불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건대·중대 병원의 경우, 병원 측의 지나친 종교적 제약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개신교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어, 불교세가 비교적 약하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직장·직능불자들의 특성상 상급자가 타종교인일 경우, 드러내놓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서가

예상보다 부족해 '무늬만 불자'가 양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을 진정한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불교 교리 강좌, 소속 병원의 특성을 살린 '맞춤 법회', '신형 상담의 장'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서울대학병원 지도법사 은진 스님은 "병원 신형과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병원과 주변 사찰의 연계 등을 통해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도법사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불자 교육을 위한 책자 배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권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m.kr  
E-mail: heegyun@avatar21.com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54> 설 음식

옛그제 설을 지냈다. 예나 지금이나 선종 집안은 때때로 웃기 때문에 회색 그대였다. 물론 세탁과 함께 뺏겨져 곱을 먹여 새 옷처럼 만들어 입었다.

그런데 선어록에 나오는 설 음식은 어땠을까? 물론 그것도 각 산중의 가풍 따라 달랐다.

담주 복선지현 선사는 설날에 대중들에게 이런 설 상차림을 해주었다.

"여러분과 함께 설을 쇠면서 기장쌀밥을 짓고 나물국을 끓여서 온 대중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마른 가지로 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리라.

그 이유는 남의 집 문안을 기웃거리거나 남의 담 밑에 기대거나 하여 의심받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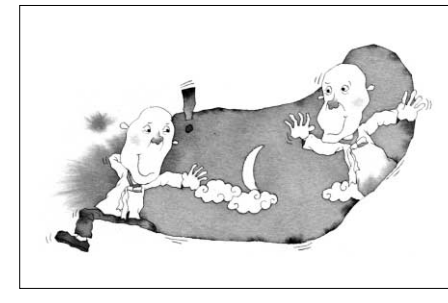
혹 집이나 초심자들이 속가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또 정월초하룻날 나무하러 간다더니 진짜 납자랍시고 "묵은 해

를 다져놓고 사람머리처럼 만들어 제물로 사용한다"는 기원한다.

그런데 개암봉 선사는 그 보다도 더 탁월한 만두를 빚었다. 쇠만두이다. 전생에 대장장이였다. 아니면 그 과보로 현재 포스코에서 설도 못 쉬고 쇠물이 벌겍게 나오는 고로(高爐)를 지키고 있을까. 거기에서 심심하면 납은 쇠물로 만두모양을 빚으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겹대기는 가능한데 속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그 만두는 씹어서 입안에서 터뜨릴 수 있다면 백 가지 맛이 구겨져서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겠지만, 만약 깨물지 못한다면 치아만 상하게 될 터이니 조심하라."

시니컬한 표현은 선사들의 또 다른 기질이기도 하다. 냉소적인 듯 하면서도 그 속에는 또 '깊은 뜻'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안목이



## 쇠만두·구름과 달로 만든 음식 등 '깊은 뜻' 담긴 계송으로 수행 독려

니 새 해니 분별하지 말게..." 어찌구 하며 학명선사의 계송을 읊조리며 첫날부터 탁발하러 나갈까봐 쌀밥에 벽난로까지 피워 놓고 놀이까지 더하여 두 극단적인 대중들을 함께 아우르려는 자비심이 빛나 보인다.

하긴 정월 초하룻날부터 결식하거나 운수개로 떠돌아 다닌다면 아무리 신심있는 단월이라 할지라도 잘 봐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암봉 선사는 설날에 만두를 빚었다. 그런데 그 만두가 쇠만두이다. 쇠고기 만두가 아니라 철(鐵)로 만든 만두이다. 피(皮)와 속이 모두 쇠로 된 대단한 기술의 경지를 보여준다.

"무쇠종으로 속을 만들고 무쇠로 만두피를 만든 무쇠 만두를 가져다가 여러분과 설을 쉬려고 한다."

본래 만두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노수리는 강가의 수신을 달래기 위하여 사람 머리 대신 밀가루 반죽 속에 소와 양고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순한 히스테리성 비틀기냐?

아니면 선지(禪旨)가 있는 법문인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종 집안 설 음식의 최고 요리사는 이 선사가 아닐까 한다. 선종적 근본주의 원리주의에 가장 충실한 설 음식이라고 하겠다.

"고개 위의 구름을 가늘게 썰고 속의 달을 얇게 썰어, 반듯하게 모나게 각을 세워 가득히 담아 격식을 따지지 않고 차려내겠다. 모두의 주린 배를 채우게 하여 영원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리라."

이와 바닷물은 술에다가 불을 앉자를 피워서 차린 것 없이 차린 공양이었을 것이다.

원칙론은 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 보통 사람에게겐 감동이 없다는 게 그 한계라고 하겠다. 물론 느낌이 각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좋지만.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2006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7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목	제출서류	개설경전	교수
불교학과 (정규, 통산 2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화엄경, 유식 30송	활안스님, 묘주스님
근본불교학과(주간, 통산 2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최봉수 교수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3월 개강 신입생 모집**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학과>, <불교장재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주간반, 통산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2006년 2월 1일 ~3월 6일 입학금 200,000원
● 불교다학과(5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불교미술학과(30명)		● 반명함판 사진 3장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재문화학과(30명)			

**2006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정	기간	요일	법사	내용
· 토요일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 40분)	만촌스님, 문종순법사	이론, 실기
· 수요일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 7시~9시)	양성도, 민명종법사	실기
· 목요일반	2년	매주 목요일(오후 12시~1시 40분)	문종순 법사	실기
· 바 라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실기

**3. 개강일시** 2006년 3월 4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8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일(목) 오전 12시 (주간반) 10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불교의식법사 수여